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활기

잠들었던 옛 도심이 깨어난다





순천 도심이 꿈틀거리고 있다. 순천시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듯 도시 재생의 숨 을 불어넣으면서다. 옛 도심은 상처가 아 물 듯 조금씩 옛 모습을 회복하면서 천천 히 새로운 의미를 더한 도시로 거듭나고

도시 재생은 고유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동네 본모습을 유지 하면서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. 순천 은 '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낱줄로 엮어내 는 천가지'라는 비전에 따라 도시 재생 사 업을 진행중이다.

◇2018년, 새로운 순천부(府) 읍성으로 =순천이 공을 들이고 있는 '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'은 도시 재생 사업의 핵심이다.

내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1만 983㎡ 부

지를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새 의미가 더해진 공간으로 만들 겠다는 구상이다. 순천부읍성 과 원도심의 역사성을 살리고 창조관광센터와 광장, 정원 등 을 조성하는 등 옛날을 간직한 도시에 새 '옷'을 입히겠다는 게 순천시 계획이다.

창조관광센터에는 사료관, 전시 ·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썬 큰광장을 조성, 사람들이 몰려 드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예 정이다.

순천시 내년까지 250억 투입 창조관광센터·광장 조성 서문터정원 10월 문열고 문화의거리에는 물길 흐르게 벽천분수·달빛거리 등 만들어 옛모습 살리고 새옷 입혀

연결통로를 통해 인근 옥천과 문화의 거 리, 창작예술촌, 지하상가, 중앙시장, 구 승주군청과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.

순천부읍성은 순천시 매곡·중앙·영동 등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순천부 읍성으 로, 둘레 1025m, 높이 3.6m로 남문, 동분, 북문, 서문 등 4개의 문을 뒀다. 성안에는 동헌, 객사, 망경루, 관풍루, 세병헌, 공북 당 등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때 해체됐

◇읍성따라 문화·역사를 느끼자=순천 부읍성 상징화 사업도 옛 모습의 숨결을 새 도시에 담아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 길을 모은다.

당장, 순천 역사 변천 과정을 담아 금곡 사거리~매산뜰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'서 문터 정원'은 오는 10월이면 확인할 수 있

또 공마당길~청소년수련관에 이르는 구간에 계곡물이 들어오는 문화의 거리 물길을 조성하고 임청대~공마당길 구간 에는 벽천분수, 전망대를 설치, 달빛거리 로 만든다.

금곡동 일대는'싹 밀고 새로 짓는' 전면 개발 대신,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면서 도 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`놀이터 같은 공동 시설 등을 만들어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.

이른바 에코지오 마을로, 유휴지 텃밭을 이웃사촌들간 정원으로 만들고 생태 주차 장을 조성하는가 하면, 태양광, 벽면녹화,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병행 하고 있다.

이외 생활환경이 취약한 향동 청수골의 경우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넓히고 마 실길이 마련된다. 소공원과 텃밭이 만들어 지고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는 작업 도 진행중이다. 1916년 지역 최초 종합병

원으로 세워진 구 안력산 격리 병동은 원형을 복원하면서 주 민들의 건강진단, 치료가 이뤄 지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 용된다.

순천시 관계자는 "순천부읍 성, 청수골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옛 도심의 흔적과 새 도시의 세련됨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게될 것"이 라며 "새로운 지역 관광·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 겠다"고 말했다.

/순천=김은종기자 ejkim@

순천 여행자 위한 무료 숙소 생겼네 원도심 장안창작마당 별채에 '장안여인숙' 오픈

숙박비는 여행 느낌 시·사진·그림 등으로 대체

만들어졌다.

투숙객은 숙박비 대신, 순천을 여 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한 창작 물을 제출하면 된다. 자신만의 느낌 을 SNS에 올리고 시·사진, 그림, 영 상 등으로 제출하도록 했 다. 순천의 오래된 도심에

머무르며 순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미 션을 주는 형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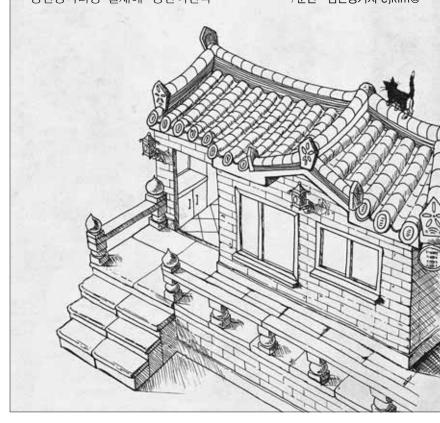
무료 숙소는 순천시 원도심에 있는 장안창작마당 별채에 '장안여인숙'

순천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숙소가 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. 여행자 들이 자유롭게 순천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다.

순천시 창작예술촌은 지난 40여년 간 삼겹살집으로 유명했던 옛 장안식 당을 정비,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시켰다. 12월까지 순천을 찾 는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.

자세한 내용은 순천창작예술촌 블 로 그 (blog.naver.com/scartvillage)를 참고하면 된다.

/순천=김은종기자 ejkim@



순천서 SNS 주제 컨퍼런스 열린다

내달 15·16일 국제습지센터

순천에서 SNS를 주제로 한 컨퍼런 스가 열린다.

순천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이틀간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'2017 순천시 SNS 컨퍼런스 및 토크쇼'를 개

SNS 컨퍼런스는 SNS를 중심으로 한 홍보·마케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운 영·정책 홍보 방향 등을 토론하는 자리 로, ▲순천시 SNS 운영현황 ▲파워마 케팅 활용법 ▲SNS 우수사례 등에 대 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.

시민 SNS 페스티벌은 16일 SNS 컨

테스트,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쇼, UCC 공모전 등으로 치러진다.

순천시는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 경험담을 접수받아 조충훈 순천 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크쇼에 서 공유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 정이다.

SNS 컨퍼런스에 맞춰 ICT 신기술 시연 및 체험행사도 9월 14~17일 열린

순천시 관계자는 "순천시 대표 SNS 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SNS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 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/순천=김은종기자 ejkim@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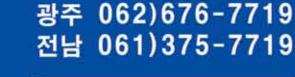


순천부읍성과 원도심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창조관광센터와 광장, 정원 등으로 조성되는 순천시 부읍성 역사문 창조관광센터를 중심으로 화 관광자원화 사업 조감도. 〈순천시 제공〉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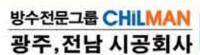








(주)씨엠테크복합방수





HAYSHAI PHAIB!!



'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"

"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"

